

BTS,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다...한국 최초 빌보드 싱글 1위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한국 가수가 ‘핫 100’ 정상에 오른 것은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2012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핫 100’에서는 2위까지 오르는데 그쳤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이번 주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미국에서 매주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핫100’에서 한국 가수가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핫 100’ 1위는 팬덤으로 북미에 진입한 BTS가 미국 빌보드에서 마지막 남은 벽을 깨고, 외연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에 ‘핫 100’ 1위에 오르면서 그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서 최근작 앨범 네 장을 연이어 1위에 올려놓았지만, ‘핫 100’에는 2017년 ‘DNA’(최고순위 67위)로 첫 입성한 뒤 2018년 ‘페이크 러브’(10위), 지난해

첫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 발매 첫 주 ‘핫100’ 정상
문 대통령 “K팝 새역사...코로나로 힘든 세계인에 희망을”
광주 출신 멤버 제이홉 “우리 팀 진심 통한 것...가슴 벅차”



이번에 1위에 오른 데에는 라디오 방송 횟수의 영향이 컸다.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시도한 영어 가사에도 팝적인 색채가 강한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내 160여 개 라디오 방송국을 토대로 집계하는 ‘팝 송스 차트’에서 이번 주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고, 1160만 명의 청취 인구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에 축하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메인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며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전했다.

과거 이 차트에서 아쉽게 2위에 머물렀던 가수 사이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싸이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주 ‘핫 100’ 순위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고 “드디어, 진심 자랑스럽다”라고 적었다.

1위 소식이 전해지자 멤버들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광주출신 멤버인 제이홉은 “춤과 음악이 좋아 시작했는데, ‘핫 100’ 차트 1위를 하는 팀이 될 것이라고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날 30일(현지시간)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다이너마이트’ 첫 무대를 선보였다.

는 상상도 못했다”며 “우리 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벅찬 기분이다”고 전했다. 슈가는 “목표가 뭘나는 질문을 받을 때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싶다고 말

하고는 했는데, 꿈이 현실이 돼 기분이 정말 좋다”며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날 30일 미국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등 4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공의 92% 파업 참여...광주시 “하루 속히 복귀해달라” 호소

전남대·조선대·기독·보훈병원 전공의 487명 파업 참여

전남 시장군수협·12개 시민단체 등 진료 거부 철회 촉구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동안 K방역이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라면서도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업으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비상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 가운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529명 중 487명(92.1%)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비한 긴급 의료지원단 모집에는 3일 만에 84명이 신청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 곁을 지키지 않는 의사들의 행태는 명분과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온 국민이 단합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바람 앞 등불과 같은 상황으로 내모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금은 국민들의 생명을 불모로 정부와 끝까지 싸워 무언가를 얻어낼 때가 아니라 하루속히 복귀해 코로나19의 안정화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치료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인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 의료체계를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집단이가지의 의료단체의 불법·부당한 의료 파업에 떠밀려 대대적인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중단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 사과하고, 흔들림없이 원래 방침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휴진 중인 의료진을 향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의료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를 불모로 빠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부정거래·배임 등 혐의...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포스트 아베’ 선출 약속선거로...스가 관방장관 대세

지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이 논란 끝에 결국 약속 선거로 결정됐다. 자민당은 1일 총무회를 열고 당원 투표 없이 양원(참·중의원) 총회로 새 총재

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중견·신진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당 집행부가 제시한 약속 선거로 결론

이 났다. 자민당 당칙에 따르면 새 총재는 원칙적으로 소속 국회의원(현 394명)과 당원(394명)이 각각 동수의 표를 행사하는 정식 선거로 선출하게 돼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141명)만 참가하는 약속 양원 총회에서 총재를 선출할 수도 있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오는 8일 고시하고, 14일 투개표를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새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 국회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기 총재 선출 방식이 약속 선거로 결정됨에 따라 자민당 내 주류 파벌의 지지를 확보한 스가 관방장관 ‘대세론’이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매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땅 매 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아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암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302㎡,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재권)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010-6683-3274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 2061 병역법위반
- 피고인: 조락훈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8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하상익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 22 사문서위조등
- 피고인: 신용정

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8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임효미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공고

광명 전기공사(대표자:성병문)는 주식회사 아르로 전기(대표자:윤희선, 성병문)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항에 의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양도대상 전기공사업 종류: 경기-00507호
2. 양도(예정)일: 2020년 09월 03일
3. 양도자: 상 호: 광명전기공사
대표자: 성 병 문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334
전 화: 031-865-5240
4. 양수자: 상 호: 주식회사 아르로전기
대표자: 윤 희 선, 성 병 문
주 소: 광주광역시 사구 대평로 2 53
5층 238호.
전 화: 070-5175-7004
2020년 09월 02일
양도자: 광명전기공사 대표 성 병 문

분할합병공고

2020년 9월 1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우수기전(이하"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금강산업(이하"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약계서도 등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2일

갑 주식회사 우수기전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능공길 67
대표이사 이순교
을 주식회사 금강산업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25
대표이사윤용하

산행안내

9월5일(토)

▲광주호산회 9월5일(토) 대원사 계곡 피서산행 대원사 둘레길,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정민오(670816-XXXXXX)
• 최후주속: 광주 광진구 비야로24번길 50 303호(비야동)
피상속인 망 정민오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1044호로 신청하여 2020년 8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9월 2일

• 상속인: 정진조(650428-XXXXXX)
광주 북구 자라봉로 33. 103동 302호 (양산동, 청암아파트)
• 신고기간: 2020. 9. 2 ~ 2020. 11.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정진조의 주소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한빛아래이 주식회사(이하"갑")와 주식회사 가민전기(이하"을")이라 한다는 2020년 09월 0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을합병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9월 02일

"갑"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방치로 25-25
회 사 명: 한빛아래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민배
"을" 주 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길 2
회 사 명: 주식회사 가민전기
사내이사: 송상훈, 송진근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금당산악회 9월5일(토) 충북 포암사·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6:20, 연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에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수석(70315-XXXXXX)
• 최후주속: 전남 해남군 문내면 중도길 44(공로리) 서울 서대문구 창민로 27-48 (용운동, 신영아파트)
2. 최후주속(20315-XXXXXX) 인친 부(망) 창민로 8, 101동 1504호 (양천동, 신영아파트)
3. 최후주속(64122-XXXXXX) 수친시 영봉구 대원로 15(매탄동)
4. 최후주속(670716-XXXXXX) 인친 부(망) 창민로 8, 110동 703호 (양천동, 신영아파트)
5. 최후주속(720808-XXXXXX) 제친시 용두천로46길 12, 102동 602호 (구만동, 보미대원아파트)
• 신고기간: 2020. 9. 2 ~ 2020. 11.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4 최후주속의 주소

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9월12일(토)
▲광주호산회 9월12일(토) 합천 남산 제1봉 해인사 소리길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19일(토)
▲광주호산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송대골, 채계산 출렁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25일(금)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계곡 B코스 울산바위 권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